



교육에 대한 몇 가지 단상(斷想)



류택희
극동대 총장

교정의 봄은 이미 무르익어 가고 있다. 정원의 수목들은 제법 여름을 재촉하듯 이곳 저곳에서 싱그러운 초록빛을 자랑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은 바사명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새삼 자연의 경외함을 느낀다. 강의동 사이로 오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활기차 보인다. 그러나 나의 가슴은 웬지 답답하고 무거운 중압감을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요즘음 마스크와 사회 각계에서 교육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상사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사회에 기회가 있고 혼란이 있을 때 도약의 기회가 있음은 역사적 경험이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 문제도 어찌 보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 욕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며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현상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대학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육 현장의 개선점에 대한 몇 가지 단상(斷想)을 적어 보고자 한다.

그간 우리 교육은 산업 사회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괄목할 만한 양적 팽창이 있었다. 양적인 교육을 통한 보편 교육의 신장은 산업 근로자들을 단계적으로 양성하는데 있어 큰 성과를 가져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국가 발전에 이러한 교육 활동이 큰 기여를 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문제는 이러한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첫째, 그것은 우리의 교육 체제가 양적인 발전에서 질적인 발전으로의 신속한 전환이 늦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의 산업 사회는 고도의 선진국 사회로 진입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의 경쟁 체제로 국제사회가 개편되고 이와 동시에 양질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 수요자들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과 양적인 성장에만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양질의 교육 환경을 신속히 확보하고 창의력을 키우는데 우리의 교육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

교육의 본질적 사명과 그 사명의 충실한 실천 과정이
진정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의 현실적 여건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교육 체제와
교육자의 진솔한 사명감과 열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둘째, 우리의 교육은 단계별, 공·사립별, 지역별, 학문별 등에 따라 설립 목적이나 교과 내용이 상호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각각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고도 산업사회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효율적인 인적 배분과 교육 투자자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교육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따른 내실 있는 특성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교육은 단시간 내에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다. 백년 앞을 내다보고 노력하는 미래지향적 활동이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신뢰성 있는 장기적 대안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초 교육과 직업 교육, 어린이 교육과 사범 교육, 영재 교육과 기술 교육 등에 치밀한 계획을 입안 시행하여 가정과 학교, 직업에 이르는 전 생애적 차원에서 신뢰성 있는 교육 체제를 안정성 있게 추진하여 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 나라의 대학 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학교수나 학생수 면에서 상당히 크므로, 사립학교의 성공 여부가 우리 교육의 성공 여부와도 직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은 국가적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대학 시설의 건축비와 교가의 연구 기자재 등은 국가의 재정으로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사학 운영은 주로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질적인 교육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든지 아니면 국가 재정 지원의 과감한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좋은 교육이란 교육비나 시설, 수업 연한, 외국 유학 등과 같은 것만을 가지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불충분한 여건 속에서도 매우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었던 사례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우리 인류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는 훌륭한 스승의 만남과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정신 자세에 의해 그 기초가 확립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적 이익에 의한 동기 체제나 집단주의적인 몰개성 체제에 의해서는 결코 좋은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편리한 환경보다는 불편이 따르는 인고의 과정에서, 개별 학습보다는 협동 학습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보다 바람직한 인성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문제는 재정적인 측면이나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육의 본질적 사명과 그 사명의 충실한 실천 과정이 진정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의 현실적 여건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교육 체제와 교육자의 진솔한 사명감과 열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백년 농사인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새삼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교정에서 활기차게 뛰노는 학생들의 티없는 웃음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